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마음 떠나선 정신계 발전 못 이뤄

여러분과 한마음으로서 이렇게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 이 강당을 건립한 것이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 십시일반으로 뭉쳐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생활해 나가는 데서도 마음과 마음이 인연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찰나찰나 바꾸어 돌아가면서 모든 개발이 되고 조화를 이루고, 또는 정신계의 창조력을 기르면서 창조를 해냅니다. 조끄만 거든 큰 거든 다 창조인 것이고, 개발인 것이고, 발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실 때에도 바로 실천과 궁행을 위해서, 진실한 오늘을 위해서,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물과 흙과 불과 바람의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형상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바람과 흙과 물이 한데 합쳐져서 온기가 생기고, 온기가 생김으로써 불과 같이 한데 동결이 돼서 생명들이 생기게끔 돼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는 암흑 속에서 모두 허덕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생명 자체가, 물도 생명이고 불도 생명이고 바람도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 한데 합쳐져서 인간까지 이렇게 오게 한 사실이 바로 암흑에서 온기가 생기고 생명체가 생겨서 진화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 혼자서는 창조해 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모두가 인연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해서 해내면 좋은 창조력을 이루고, 만약에 나쁜 악성으로서 인연을 지어 나간다면 악행이 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좋은 인연을 지으면 좋은 업보가 오는 것이고 나쁜 인연을 지으면 나쁜 업보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연을 지어서 행하고 나가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달마대사가 양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듯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건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사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정신계에, 내면세계에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에 의해서만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공덕이 될 것이고, 내가 시주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보시를 얼마를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또는 우주적으로나 모두가 혹성들이 한데 합쳤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합치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이루고, 또는 하나가 스무 개가 되고 스무 개가 만 개가 되고, 만 개가 십만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혹성이라는 게 벌어졌고, 별성이라는 자체는 바로 마음의 불씨인 것입니다. 마음의 불씨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없었다면 한자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자리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의 인연들로 하여금 저렇게 우뚝, 보람있는 강당이 생겼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 식구가 이리로 가도 하나요, 저쪽으로 가도 하나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섯 식구가 사는데 이 식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이 식구에게 하나로 몰아주고, 저 식구에게 가게 되면 그쪽으로 하나로 몰아주고, 어린애에게 하나로 몰아주고, 이리로 가도 하나고 저리로 가도 하나가 되게끔, 하나로 돌아가게끔 하십시오. 한마음의 인등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마음을 내면 바로 불을 켜는 거나 한가집니다. 불을 켜게 되면 다같이 불이 들어와서 한 방이 밝아지도록 할 수 있는 도리를 취하십시오.

정신계의 발전이란 내 마음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 떠나서 어디 집이 생기고, 어디 생활이 있고, 부처가 있고 종교가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교(佛敎)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교(敎)란 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서로 통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나 또는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서로 뜻이 통하고 가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 군데 국한된 단어가 아닙니다. 끝간 데 없는 진리를 이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지(地)·수(水)·화(化)·풍(風)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을

> 자기 마음의 계율을
> 지킨다면
> 남이 준 계율보다
> 한치 에누리 없어

충만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계의 모든 작용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모두 각자 오신통이 다 갖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면세계를 등한시하고 물질계 50%만 가지고 살려니 얼마나 걸리는 게 많겠습니까마는,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서로 작용을 한다면 얼마나 걸림이 없이 평온하고 여여하게 살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신통이 있다는 사실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마음의 귀로 듣는 거, 마음의 코로 냄새 맡는 거,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아는 것, 또는 가고 옴이 없이 마음이 가고 오는 거, 듣지 않는 데서 듣는 거 모두가 다, 그것을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통 다섯 가지를 비유하는데 쉽게 우리가 한번 말을 해볼까요? 항상 말하는 겁니다. 항상 들어도 귀로만 듣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탐지기는 남의 마음을 읽죠? 그게 타심통이라고 비유하고요. 천이통은 무전통신기로 하죠. 마음으로 듣는 소리. 천안통은 천체망원경,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 말입니다. 그걸로 비유해도 됩니다. 신족통은 바로 팩시밀리로 비유합시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이런 거 말입니다. 숙명통이란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직을 하려고 뇌물을 가지고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단둘이만 앉았는데 뇌물을 주니까 안 받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좀 받고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있지 않느냐?" 하더랍니다. 하하하.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을 하고,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깐'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이 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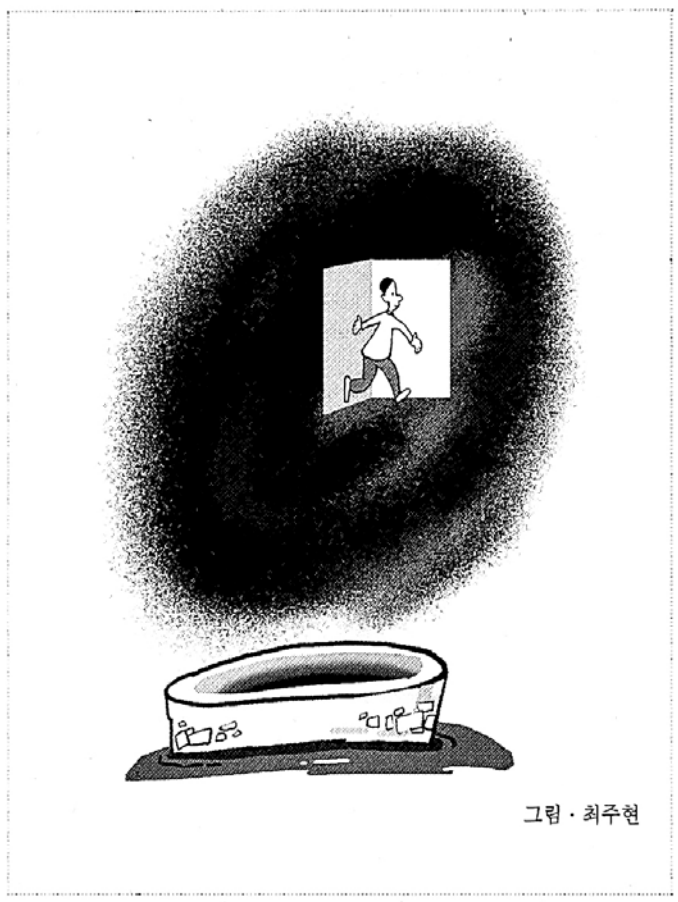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바로 아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컴푸터에 입력이 된다면, 또 어디로 퍼지나? 우주간 법계는 전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도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도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모두 인연줄에 따라서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거짓말을, 그래서 수도자들은 계율을 지키라고 계(戒)·정(定)·혜(慧)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모두가 마음의 장난인데 마음의 장난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으며 훌쩍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마음은 어디까지나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어서 오신통을 훌쩍 벗어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오신통을 훌쩍 벗어나서 누진(漏盡)으로 통신이 돼야 누진에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서 바로 바깥의 대기권에도 모두 통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들이고 내는 레이다망, 즉 말하자면 두뇌의 오른쪽 왼쪽에 작용을 하면서 그 핵심이 거기에서 바로 바깥 세상과 안 세상 모두를 작용을 하게끔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성의학도 되고 심성과학도 되고, 심성철학도 되고 심성천문학도 되고, 이 세상 만사가 다 마음의 핵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더하고 덜함도 없고, 흘러 간다도 없고 흘러 온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사대로 흩어질지언정 마음의 핵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맷돌을 아래 위 끼워서 돌린다면 그 맷돌의 중심은 돌아가지 않고 힘만 가하게 됩니다. 힘! 맷돌이 돌아가게끔 힘만 주는 것입니다. 맷돌이 돌아가는 대로 인연에 따라서 팥을 넣으면 팥이 갈려 나오고, 어떤 음식을 넣든 갈려 나옵니다. 내가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봉은 영원한 것입니다. 심봉에 의해서 어떻게 갈아내느냐, 무엇을 넣어서 갈아내느냐? 어떠한 인연을 통해서 무엇을 갈아내느냐? 나쁜 일을 갈아내느냐 좋은 일을 갈아내느냐, 선덕을 쌓느냐 악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아무걸 갈아내든지 심봉은 말이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끌어다 쓰는 대로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힘만 가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마음의 핵심에서 나와…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라는 놈이 그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마음을 다 해 가지고 몸뚱이가 움죽거리게까지 놔두면, 망아지나 소의 고삐를 풀어 주면은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막 먹어버리고 짓밟아놓습니다. 그렇게 누가 되는 일은, 어떠한 문제래도 누가 되는 일은 삼가할 수 있게끔 자기가 자기를 리드해 나가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 다스리게끔 해 주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부처님이 어떠니 저떠니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힘만 가하는 거지, 요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기를 다스리면서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문을 통해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저 문을 통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사방이 다 터지고 지붕도 없고,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한찰나에 오고 가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 보이지 않는다고
> 우습게 생각하고
> 없는줄로 알지만
> 허공엔 생명 가득

그러니 여러분이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이, 우리 수도자들만 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아니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은 개미라 해도 계율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계율이 있구요. 그렇듯이 바로 자기 마음의 계율을 지킨다면 남이 준 계율보다도 아마 한 치도 에누리 없이 계율을 지킬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고, 도의나 의리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한마디 해놓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반면에 신용을 잃고, 사람답지 않게 살게끔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말 한마디하는 게 보증수표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은 더하고 덜함도 없이 에누리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죄진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苦)가 많습니까?' 합니다. 지금 고가 많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지켜보십시오.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참외 씨 심으면 참외가 열립니다. 세상만사가 다 끼리끼리 놓여져 있습니다.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모여 있고 높으면 높은 대로 모입니다.

정신계 100%에 가려 하는 그런 의식과 더불어 신념이 뚜렷한 분들은 정신과학을, 생활을 습득하기 위함이요, 깨닫기 위함이요, 행하기 위함이니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에 가봐도 배는 배대로 놓고 사과는 사과대로 놨습디다. 모든 게 끼리 끼리들 놓여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거 두 마디만 해도 알겠죠?

그러니 천차만별로 여러분이 마음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내가 가만히 볼 때는 어쩌면 그렇게 답답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더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벽을 치면 봇장도 울려야 되는데 벽을 아무리 쳐도 봇장이 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이지 '야 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을 뜨고 마음이 넓어져야 될 텐데 아주 캄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안 된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면은 저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띄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얘기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지만 듣는 분들이 건져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되 말합니다.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력도 물이 아니면 안되죠?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사용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정신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들이고 내는 것이 바로 그 핵심에서 나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작용을 해서 생활을 할 양으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전력을 끌어쓰듯이, 태양열을 끌어쓰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량이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는 우습게 생각하고 없는 줄 알지만 허공에 생명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늘 사는 것만 붙들고 늘어지고 온갖 힘을 다해서 착을 가지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빨리 놓고 돌아가야 만이, 피가 돌아가는 거와 같이 돌아갈 텐데 온통 붙들고 늘어지니 피가 돌아가나요? 마음이 그렇다면 몸 자체도 병이 드는 수가 많습니다. 정맥 동맥이 재빨리 돌아가야 세포 하나 하나가 절대적으로 걸림 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한쪽을 붙들고 늘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하하하.

몸뚱이도 망가지고 생활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 가지 백 가지 만 가지가 다 하나로 이루어지고 하나로 가라앉고 합니다. 그렇듯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이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밀물 썰물도 둘이 아니고, 물 속에서 사는 생명들도 파도가 쳐야만 그 밑까지 열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태양열이 같이 돌아가니까요. 태양이 물 속까지 비춰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쳐서 물이 혼합이 돼야만이 모든 생명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도가 극성을 떨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생각을 한번 해 봐야지, 내 생각만 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지혜가 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꽃 한 송이를 꺾더라도 남이 아프게 생각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새가 갸륵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말 안하는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없고, 슬피 울지

☞ 18면으로 계속

회 원 가 입

안양 보장사 영각당(납골당)

안양유원지 입구에 위치하여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 최고의 시설과 높은 신뢰를 자랑하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가 납골당을 준공하여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철 1호선 관악역 도보 10분)
(장례에서 납골 · 49재까지 완벽한 서비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보장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육부 인가 전문대학원) · 보문중, 고등학교(대전) ·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체주차장과 공영주차장 600대 주차가능)
031-471-3322, 02-808-3321 www.bojangsa.co.kr

※ 영각당(납골당)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액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보문중 · 고등학교(대전), 안양시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될 것입니다.